【번역논문】

북경어의 만주어 기층 분석과 만한어의 융합 법칙

趙　　杰*
宋 康 鎬**

차　례

1. 북경어 속의 만주어 기층 분석
2. 북경인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만 잘 모르고 사용하는 만주어
(만한 복합어, 만주식 한어 - 50개 어휘 분석)

1. 북경어 속의 만주어 기층 분석

청대 만한어(滿漢語)[1]와 기민어(旗民語)[2]의 접촉 융합으로 인하여 현대 북경어 속에는 많은 만주어 기층 성분이 남아 있다. 이들 성분은 구체적으

본 논문은 북경대학교 조걸 교수의 박사논문『북경어의 만주어 기층과 '경음' '아화' 연구(北京話的滿語底層和輕音兒化探源)』의 제2장「북경어의 만주어 기층 분석과 만한어의 융합 법칙(北京話的滿語底層例析及滿漢詞語的融合規律-北京人習焉不察但却常用的滿語)」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을 허락해주신 조걸 선생님, 만주어를 지도해주신 서울대 언어학과 성백인 선생님(현 명예교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만주학회 서정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북경대학교 교수
** 만문사료연구소

1) 역자주 : 만주족이 사용하는 만주어와 한족이 사용하는 한어, 두 언어를 말한다.

2) 역자주 : 기인(旗人)과 민인(民人)의 언어를 말하는데, 기인은 북경 내성의 만, 몽, 한 팔기 및 그 가족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민인은 청대 북경 남성(南城)의 한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로 대량의 만주어 어휘, 만한 합성어 그리고 '만주식 한어'[3]에 체현(體現)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강(京腔)[4]의 일상적인 구어(口語) 속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만주어의 어음 특징과 기민어(旗民語)가 들여온 만주어 발음 습관은 대부분 이들 어휘 속에서 원래의 북경 한어 어음과 유기적인 융합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들 기층 어휘들을 발굴하고 아울러 간단명료한 어원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작업이다.

논문의 분량 제한으로 여기서는 다만 필자가 7년(1987년~1994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한 800개의 어휘 중 100개만을 분석하여 "작은 관문을 통해 전체를 본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에서 "청대 만주어음"은 증정(增訂), 사체(四體),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 및 청문휘서(淸文彙書) 속의 만주어 어휘이며, 국제음표(國際音標)는 필자가 일본인 학자인 우전형(羽田亨, Haneda Toru)의 『滿和詞典』에서 로마자 음역법[5]을 참고하여 전사한 것으로, 별표(*)가 붙은 것은 만주어 경어(京語)이다. 한어 의미에서 가로획(-)이 있는 경우 좌측은 청대 한어의 의미이고, 우측은 현대 한어의 의미이다.

2. 북경인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만 잘 모르고 사용하는 만주어 (만한 복합어, 만주식 한어 - 50개 어휘 분석)

한자표기	청대만주어음	현대 경강음(京腔音)	한어 의미
禿魯	t'ur-xa	t'u. lu	脫掉

3) 만주족 문화에서 기원하여 먼저 기인(旗人)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가 다시 북경 전체로 확산된 한어 어휘.

4) 역자주 : 경강(京腔)은 북경에서 사용하는 '북경 말씨'를 말한다.

5) 역자주 : 표기 입력상의 어려움으로 일부는 약간 변형시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예) →š 등

www.kci.go.kr

한자표기	청대만주어음	현대 경강음(京腔音)	한어 의미
巴不得	paputə	pa. pu. tə	極想撈着
肋膘	lət'ə lat'a	lə. t'ə	累墮, 行李壘頹-不利羅, 穿衣不齊整
恨不得	xən(tu)put	xən.putə	極想讓(誰)受懲罰到
妞妞	nionio	niou	眼珠, 愛小兒詞-女(妞兒)孩兒
羅嗦	lor səm	lo. so	話不休歇狀
邋遢	lat'a	la.t'ə	遲鈍-懶散
搭襠(塔坦)	t'at'an	t'ataŋ	窩棚-伙伴
薩其瑪	satɕ'ima	sa. tɕi ma	糖纏
和弄	xol(pompi)	xo. loŋ	聯絡, 匹配-攪拌, 使混合
喇忽	laxw	la. xu	犧牲, 打獵, 下網打魚技術不怎麼樣-干活粗糙, 辦事粗心大意
挺	t'ən	t'iŋ	極, 很
嘎古	* qaku	qa. ku	性情怪僻, 爲人不善
伍的	* uta	u. tə	等等
老老	lar(səmə)	lɔ sɔ	活累贅狀, 多言無濟之人-鄙斥庸懦之人的說法
馬勺	maša	ma šau	帶柄木杓子-小型抄菜鍋
抖露	toola(mpi)	tou. lə	滕寫, 倒水-披露, 揭露
數落	šulə(mpi)	šu. luo	徵收-挨查了, 挨說了
划拉	xuala(mpi)	xua. lə	院-掃院子, 掃
松	soŋkompi	soŋ	哭-好哭, 無能力
白	paipi(pai)	pai	白白地, 只是(等閑, 無事)
膈扎(格支)	kəšʃxəšə(mpi)	kə. tɕi(kə. tšʃ)	腋下搔痒痒兒
屯	t'ok'so(xot'un)	t'on(t'un)	村庄, 屯子
哨卡	q'arun	šauq'a	哨探-哨所
公子哥兒	aqə	kuŋ. tsʃ qərə	大人家的少爺
檔案	taŋsə	taŋ an	文書履歷
猫匿	mo	mau ni	隱藏
末了	lala	mə. liɔ	最後面
軋伍悠兒	japu(jawu)	ja. wu jou r	行走-慢走, 晃蕩

www.kci.go.kr

한자표기	청대만주어음	현대 경강음(京腔音)	한어 의미
扎呼	ʧa pu	ʧa. xu	使答應-話多顯白
馬猴兒帽	maxala(maxw)	ma. xu mau	冬帽子(涯:暖帽)
軋馬路	japu	ja ma lu	行走-在馬路上散步
車把式	pakʂ∫	ʧə pa. ʂ∫	赶車的老板
藏猫兒	mo	tsaŋ mau rə	隱藏起來
母們	musə	mu. mən	我們
怪不得	putə	kuai. pu tə	責怪的意念兌現了
大大咧咧	lələ	ta. tə liɛ liɛ	言行粗曠滿不在乎
娘們娘氣	nialma(niam)	nia.m nia tɕi	小佳人-女哩女氣
急齒掰臉	paiʧ'a	tɕi. t'o pai liɛn	好發脾氣
有一搭	ta	jou. jita	當件事兒辦也
無一搭		wu. jita	不當件事辦
馬虎眼	maxw	ma. xu jiɛn	鬼臉, 假面-使眼色來打掩護
瞎掰	paiʧ'a	ɕia pai	瞎驗查, 瞎說
配搭兒	ta	p'ei. tə	長, 頭兒, 担有一定角色的人 -給長官做配角的人
嗄肢窩	kəʧʂ(xəʂəmbi)	qa. ʧʂ wo	腋下搔痒兒-腋窩
馬褂兒	kualasun	ma kua rə	短褂
抓辮子	ʧua	piɛn. ts	抓要害
(吃)皇粮		xuaŋ. liəŋ	靠國家保證生活
旮旯兒		qa la rə	角落
趿拉板兒		t'a. l pa rə	用木板制成的拖鞋
旗袍兒		tɕ'i p'au r	旗人的外衣

3. 어원 분석

"禿魯"[6]는 청대 만주문(滿洲文) 속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은 이 같은

www.kci.go.kr

6) 역자주 : 禿魯 ; 풀어지다. 느슨해지다. 떨어지다. 기밀을 누설하다.

어휘가 만주어 구어(口語) 속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진어에 [t'ur-xa]가 있는데, 여기서 [xa]는 어법적으로 접미사가 된다. 구어(口語)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t'ur]이 남았는데, 경강(京腔) 구어음(口語音)에서 고평조(高平調)의 [t'ul]이 그것이다. 현대어의 의미와 여진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서로 같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길림(吉林) 이통(伊通) 만주족 자치현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해서여진(海西女眞) 방언이 북경에 유입되어 들어온 만주어 경어(京語) 어휘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 북경어 속에서 항상 사용하는 "你毛衣的絨線禿魯了"가 바로 이런 의미이다.

"巴不得"[7]의 [pa]는 청대 만주어 경어(京語) 구어(口語)에서 "得到" 또는 "撈着"를 나타내는 어간이다.[8] [pu]는 만주어의 사동식이며, [tə]는 만주어의 여격(與格)으로 "給予", "施予"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함께 사용하면 바로 "使(誰)撈着"가 된다. "tə"는 받는 주동자(主動者)의 시여(施與) 방향을 추상적으로 표시하는데, 한어로 번역하면 "極想", "就盼着", "但愿" 등의 의미이다. 북경어에 들어와서 한어의 부단한 변화를 거쳐서 이미 마음 속의 희망을 나타내는 "위빈(謂賓)동사"가 되었으며, 어음상으로 여전히 만주어 경어(京語)의 "중경중"(重輕重)의 운율(韻律)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她巴不得别人倒霉, 眞够興灾樂禍的了!"식이다.

"肋膩"[9], 현대 경강음(京腔音)은 청대 만문(滿文)의 앞부분 한 단어의 음을 취하여 전중후경(前重後輕)의 [lə t'ə]가 되었는데, 청대 만주어의 해석은 "累墮", "形李壘頹"로, 오늘날의 "肋膩"가 가리키는 의미인 '옷을 입는데 단정

7) 역자주 : 巴不得 ;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몹시 ~원하다.
8) 역자주 : baimbi ; 찾다(尋找). 구하다(求)
9) 역자주 : 肋膩 ; (의복이) 꾀죄죄하고 단정치 않다.

www.kci.go.kr

치 못하고', '가지런하지 않은' 모습과 자연히 어의(語義) 계승 관계가 있다.

"恨不得"[10]는 앞에서 서술한 "巴不得"의 어법 구조와 같다. [xən]은 만주어 [xəntu](譴責)의 어간으로 전체의 의미를 대변한다. [xən]은 본래 음평(陰平)인데, 거성(去聲)이 된 것은 한역자(漢譯字)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pu]는 사동식이고, [tə]는 여격(與格)으로 방향을 나타내며 어떤 때는 매우 추상적이라서 한어로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역하여 "使譴責向"하고, 의역해서 "極想讓(誰)受懲罰到"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북경어에서 항상 "我恨不得給他兩耳光子", "恨不得往他臉上吐口唾沫"라고 한다. 북경어 "恨不得"의 음소(音素)는 만주어와 똑같이 "중경중(重輕重)"으로 읽는다. 이것은 한어 고유 체계에서 가능보어를 나타내는 "恨不得"과 전혀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음상에서도 한어 "恨不得"의 "不得"은 중고(中古) 시기 이후 어법상의 허사(虛詞)가 자연히 약화되어 경성(輕聲)으로 읽힌 것으로 만주어의 경음(輕音)과는 유래가 다르다. 의미상으로 한어의 "恨不得"은 "不能恨"으로, 즉 "恨了某人, 某人有可能耿耿于懷, 一輩子給你小鞋穿"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한어의 일반 동사에 "不得"이 붙어서 모두 "不能+動詞"로 바뀔 수 있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打不得=不能打", "說不得=不能說", "愛不得=不能愛"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만한(滿漢) 두 언어의 결합이 북경어 속에서 같은 구조를 이루는 전형적인 예의 하나이다.

"妞妞"(妞兒)[11]는 청대 만주어에서 본래 전중후경(前重後輕)의 쌍음절어이다. 전국에서 주둔 방어하던 오늘날의 팔기(八旗) 후예의 언어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nio·nio][12]라고 한다. 쌍음절어가 단음절어로 변하였고 게다가

www.kci.go.kr

10) 역자주 : 恨不得 ; ~을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간절히 ~하고 싶다.
11) 역자주 : 妞妞(妞兒) ; 계집아이, 딸아이.

아화(兒化)가 되어 청대 초기 이후의 북경어 속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眼珠兒"와 "對小兒的愛稱"이 작으면서[小] 사랑스러운[愛] 것을 나타내는 어의상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전적으로 여자 아이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청대 입관(入關) 이후에 만주족은 여성을 높이고 아가씨(집안의 처녀, 딸)를 존중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姑奶奶"[13]라는 어휘가 생겼다. "妞兒", "妞"는 만주어에서 "眼珠 · 女孩兒"를 나타내는 "妞妞"의 생략형으로, 작고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자연히 북경어 속에서 아화(兒化)가 더해졌다. 한어의 "花"를 사용하여 "妞兒"을 수식하는데, 통상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울긋불긋하게 분장한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 "妞"자는 아마도 금대(金代) 여진인이 화북지방을 통치하던 1백여 년간에 여진어를 거쳐 한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하북(河北) 방언 중에 "妞"자를 사용하여 여자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 관습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화(兒化)하지는 않는다. 북경어 속의 "妞兒"은 청대 초기 팔기(八旗)가 동북에서 들여온 것과 더욱 비슷하다. 이것은 청대 만주족이 민간(民間) 구두(口頭) 문학과 오늘날에 주둔 방어 팔기의 경강(京腔) 방언 지역에서 모두 "妞兒"을 광범위하게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大妞兒"은 노처녀를 가리키고, "小妞兒"은 여자 아이를 가리킨다. 북경어의 "妞兒" 역시 단지 "女孩兒"만을 가리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성년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漂亮妞兒", "洋妞兒"이다. "妞"는 이미 조어력이 강한 하나의 단음절어가 되어 오늘날 북경어 속에서 활약하고 있다.

www.kci.go.kr

12) 역자주 : nionio ; 愛小兒詞.
13) 역자주 : 姑奶奶 ; 시집간 딸에 대하여 친정에서 부르는 호칭.

"羅嗦"[14]의 청대 만주어 어의와 현대북경어 어의는 완전히 같다. 청대 만문(滿文) 중에 "話不休歇狀"라는 해석에 대해 오늘날의 현대적인 의미의 해석이 이를 조금도 넘어서지 않는다. 어음상 {lor səmə}은 {lo . so}으로 변했는데, 구어(口語)에서 전중후경음(前重後輕音)은 {r}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탈락하고, 상태 접미사는 모두 경음으로 가볍게 빠른 속도로 읽을 때 뒤의 음절 {mə}가 탈락하여 {lo sə}가 된다. 만주족의 원음화해율(元音和諧律) 발음 습관 때문에 뒤의 원음(元音) 역시 동화되어 {o}로 되어서 오늘날 전중후경(前重後輕)의 {lo . so}가 되었다.

"邋遢"[15]는 청대 만문(滿文)에서의 해석은 "遲鈍"[16]이다. "遲鈍"에서 현대 북경어의 "懶散"[17]으로 되었다. 중간에 어떤 만주 기인(旗人)은 "遲鈍"이라는 의미의 "邋遢"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음상 "邋"자는 상성(上聲)으로 읽는데, 북경어에 와서 '대뇌반응이 둔하다'는 의미에서 '신체 행동 반응이 둔하다'는 의미가 되었는데 이는 어의 파생의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塔坦"(搭當)은 {tʻatʻan}[18]에서 변하여 {tʻa. tʻə}가 되었는데, 처음에 만주어 경어(京語) 전중후경(前重後輕)의 쌍음절이 뒷부분의 {tʻan}를 약화시켜 {tʻə}가 되었고, 다음에 아화(兒化)가 부가되어 {ə}로 되었다. "搭坦"은 한어로 번역하면 "窩棚"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만주족의 초기 풍속 습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백산과 흑룡강에서 밖에 나가 사냥을 하거나 군사 행동

14) 역자주 : 囉嗦 ; 말이 많다. 수다 떨다. 수다스럽다.
15) 역자주 : 邋遢 ; 한어병음 {lāta} 불결하다, 칠칠치 못하다.
16) 역자주 : 遲鈍 ; 둔하다. 굼뜨다. 무디다.
17) 역자주 : 懶散 ; 나태하고 산만하다.
18) 역자주 : tatan ; 숙영지. 오두막집.

www.kci.go.kr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임시로 야외에서 만든 숙영지인데, 달리 "窩鋪" 또는 "小屋"이라고도 한다. 이것의 의미는 옛 북경인 사이에서 우연히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옥이 작은 것을 "塔坦"으로 비유하는데, 위의 예에서 말한 "塌塌兒"는 비록 만주어의 [t'at'ara]에서 온 것이지만 실제로 만주어의 옛 어휘에서 분화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요점은 "塔坦"의 의미가 전성되었다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움막을 짓고 거주하는데, "塔坦"은 나중에 다시 함께 거주한다는 "窩棚"에서 파생되어 움막 안에 함께 거주하는 한 무리의 사람, 즉 동고동락하며 서로 협력하는 동료를 뜻하게 되었다. 이 같은 파생 의미는 어음상으로도 서로 통한다. 만주어 구어(口語) 중에 송기음(送氣音)과 불송기음(不送氣音)은 항상 음위(音位; phoneme)의 자유로운 변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음 환경 속에서 상하문맥에 의해 문장의 의미를 구별한다. "塔坦"은 음이 가깝고 뜻이 통하는 원칙을 따라 "搭襠"[19]이라는 두 개의 한자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伙伴"이라는 의미를 지닌 "搭襠"이 만주식 한어를 거쳐 북경어가 되었고, 이것은 현대 한어의 상용 어휘가 되었다. 예를 들면 "他是我的老搭襠了."식이다.

"薩其瑪"[20]라는 어휘는 오늘날의 음소가 청대 만주어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tɕ']음은 당시에 설면전색찰음(舌面前塞擦音)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간 혼합설엽색찰음(混合舌葉塞擦音) [t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 북경어의 중음(重音) 계통은 완전히 만주어 경어(京語) 삼음절(三音節) 어휘인 "중경중(重輕重)"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薩"자는 첫음절이

19) 역자주 : 搭襠 ; 한어병음 {dādāng} 단짝. 콤비.

20) 역자주 : 薩其瑪 ; 중국 동북지방 과자의 일종으로 계란과 설탕을 밀가루와 섞어서 반죽하여 기름에 튀기고 물엿으로 굳힌 다음 적당한 두께와 크기로 만들어 겉에 매실을 잘게 썰어 뿌린 과자.

중음이라 거성(去聲)으로 읽는데, 다만 북경에서 보편적이고, 청대 초기 외지로 파견된 주둔 방어 팔기의 만주식 한어에서는 대부분 “薩”을 음평(陰平)으로 읽는다. 그중에는 한어 중에 만주어 기층 어휘의 음운 변화의 시간적 경과를 볼 수 있다. “薩其瑪”는 만주족의 독특한 강정류로 밀가루 과자류에 속한다. 설탕을 바른 형태의 사탕과자인데 현재에도 “金絲糕”라고 부르고 있다. 북경이나 전국 각지에서 모두 널리 먹을거리로 애용되고 있다.

“和弄”은 청대 만주어 서면어의 [xolpompi][21]와 동일한 어휘이다. 약간의 음과 의미상의 변화가 있는데, 우선 만주어 경어(京語) 구어(口語) 어간으로써 전체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xol]이 되었다. 즉 한어의 간략한 요청에 부합하고 있다. 만주어 속에서는 본래 명령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xol]은 {xo . lo} 또는 {xo . lo]로 변하였는데 입관(入關) 이후 북경 한어로 바뀐 결과일 것이다. 동북 만주어 지역과 대부분의 동북 한어 방언은 모두 [xo . l] 또는 [xo . lo]라고 하는데, 앞의 한 음절을 읽은 것은 만주어 원래의 고평음고(高平音高)이며, 뒤의 음절 폐보음(閉輔音)은 아직 완전히 원음(元音)이 부가되지 않았다. 북경어 속에서 비로소 다시 [xo]를 [xo]로 변화시켜서 [l]뒤에 다시 [oŋ]를 부가함으로써 가급적 한어와 서로 가까운 운모인 [uŋ]에 접근하게 하고 전체 단어는 만주어 경어(京語)의 전중후경을 들여와서 {xo . loŋ}으로 되었다. 이 어휘의 만주어 의미와 현대 북경어의 현대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어의 파생 관계가 뚜렷하다. 만주어의 “聯絡, 匹配”에서 파생되어 액체나 고체 및 그것을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리키며 어의상으로 축소형 변화에 속한다. 한역자(漢譯字)는 음이 가깝고 의미가 통하는 관습에 따라 “和弄” 두 자를 선택하였는데, 이 두 글자의 원래 의미도

www.kci.go.kr

21) 역자주 : holbombi ; 짝짓다. 연결하다.

대체로 만주어 {xol}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이 만주어에서 차용한 어휘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데, 당초 번역자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치밀한 언어학자의 경우 우리는 음운적으로 여전히 마각(馬脚)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弄"자는 산해관 안쪽에서 표준어[普通話]를 하는 사람은 모두 {n} 성모로 발음하고, 동북과 북경의 만주족이 하는 한어에서는 "弄"의 성모는 {l}로 발음한다. "和弄"의 "弄"은 동북에서 내려온 옛 북경 기인(旗人) 후예들은 줄곧 {l} 성모로 발음한다. 이것은 당초 만주족이나 동북 한군(漢軍) 기인(旗人)들이 만주어 {l}을 음역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내 각지에서 북경에 온 한족은 이 같은 어휘의 발생 배경과 유래를 이해하지 못하고 "和弄"의 표준어 음역대로 "弄"의 성모를 {n}으로 발음하는데, 경강(京腔)의 음운상 묘미를 놓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북경어는 모두 {xo . loŋ} 또는 {xuo . luŋ}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板藺根冲劑倒在杯子里, 加上開水, 得用勺子和弄和弄"

"喇忽"[22]은 청대 만주어 {loxw} 속의 후차고원순원음(後次高圓脣元音) {w}은 만주어 학계에서 그 음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어떤 몇몇 학자들은 {ɔ}라고 하는데, 실제로 {ɔ}음은 만주어에서 극히 드물게 사용한다. 만주어에서 {w}음을 나타내는 자모(字母)와 로마자전사자 "u"는 후기 만주어에서 모두 {u}로 변하였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당시의 음가로 {w}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확정지을 수 있다. 현대 경강음(京腔音)은 {w}에서 {u}로 변했다. 즉 만주어 음운 변화 법칙에 부합하고 한어 북경어의 음위(音位)에도 들어맞는다. "喇忽"의 중경(重輕) 운율 특징은 앞에서 서술한 각 어휘들과 같다. 이하는

www.kci.go.kr

22) 역자주 : 喇忽 ; 한어병음 {lahu} 몽롱하다. 방심하다. 부주의하다. 얼떨떨하다.

각 만주어 어휘의 현대 경강음(京腔音) 역시 모두 “중경”(重輕)(쌍음절)과 “중경중”(重輕重)(삼음절)의 구별이 있다. 그들과 앞에서 서술한 만주어 어휘와 같이 모두 만주어 경어(京語)의 음중(音重) 특징이 한어에 들어온 결과이다. 하편(下篇)에서 상론하고 여기서는 불필요한 거론을 하지 않는다. “喇忽”의 어의는 청대 만주어에서 “不攪性”을 가리키는데, 가축도살, 활쏘기, 그물로 고기잡는 방면 등에서의 기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현대 북경어로는 “干活不細心”, “馬馬忽忽, 粗心大意”를 가리킨다. 어의가 확장되어 어떤 사람의 작업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오늘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那个人干事兒眞喇忽, 得糊弄就糊弄.”

“挺”은 청대 만주어에서 발음이 [t'ən][23] 이었다. 그런데 북경 교외의 만주족 노인들이 말할 때는 “挺”을 [t'in]으로 읽는다. 원음(元音)이 [ə]에서 높아져서 [i]가 된 것은 북경만이 아니고, 동북 만주족과 전국 주둔 방어 팔기 경강(京腔)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t'iŋ]이라고 하는 것은 한인이 나중에 다시 고친 결과이다. 여기서 음역(音譯) 한자(漢字) “挺”의 본래 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만주어 경어(京語) 어미인 [n]과 [ŋ]은 청대 후기에 원래 뒤섞인 내부적 특성이 있었다.(香山 만주족 노부인은 오늘날 “京城”을 “[tɕin]城”으로 발음한다.), “挺”을 [t‘iŋ]으로 발음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어법적으로 청대 만주어와 현대 북경어의 “挺”은 모두 상황어인 부사가 되었다. 어의상에서 청대의 “極”과 현대 한어의 “很”은 같은 의미이다. “挺”은 북경어 속에서 사용 빈도율이 “很”보다 높다. 특히 구어(口語) 속에서 심해서, “挺好”의 문체상의 맛과 색채는

www.kci.go.kr

23) 역자주 : ten ; 극진. 극(極).

“很好”로 대체할 수 없다. 북경어를 사용하는 각 민족은 모두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만주어가 한어를 풍부하게 하였다는 가장 분명한 징표이다.

“嘎古”[24]는 청대 만주어에서 현대 북경어까지 그 음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 어휘 역시 만주족 민간에서 유전하다가 북경어 속에 들어온 만주어 경어(京語) 어휘이다. 북경 시내 시민들의 구어(口語) 속에서 누군가가 사람됨이 좋지 못한 괴상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嘎古”로써 형용한다. 예를 들어 “那个人特嘎古, 与他來往得堤防一点”

“伍的”[25]의 여진어 속에서의 독음(讀音)은 {uta]이다.(金啓孮, 『女眞語文辭典』, 1984 참고) 그 의미는 “等等”이다. 비록 이 어휘가 청대 만주어 문헌 속에는 극히 드물게 보이지만 그러나 만주어 경어(京語)와 북경어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uta]가 변하여 {u . tə]가 되었는데, 이것은 상성(上聲) 성조와 중경(重輕) 운율 특징이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북경 구어(口語)는 열거를 나타낸 뒤에 생략어를 사용할 때 정규의 “等等”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伍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退休了沒事兒干, 在家打个牌兒, 下个棋伍的.”식이다.

“老老”[26]는 {lar]가 변해서 {lɔ . lɔ]가 되었다. 우선 만주어 {a]는 후저전순원음(後低展脣元音)으로 전순(展脣)에서 같은 혀 위치인 원순원음(圓脣元音)으로 변했는데, 후저(後低) 부위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며, {r]이 한어의 {l]로 변하는 것은 만주어가 한어로 전환할 때 항상 보이는 현상에 속하는데, 왜

24) 역자주 : 嘎古 ; 괴벽하다. 괴팍하다.
25) 역자주 : 伍的 ; 등등. 따위. [等等][之類][什麽的]
26) 역자주 : 老老 ; 마음속으로 수긍하지 않거나 경멸하는 표현.

www.kci.go.kr

냐하면 이것은 한어에 설첨후저음(舌尖後顫音)이 없기 때문에 만주어의 이 같은 어음이 자연 상동발음(相同發音) 부위의 변음(邊音) [l]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l] 뒤에 다시 [ɔ]가 붙게 된 것으로 이것은 앞의 한 음절이 순행동화로 생겨난 원음화해(元音和諧)로 증가된 음이 분명하며, 대역 한어 자체의 독음(讀音)(“老老”)에 따른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대 만주어의 후미에 항상 [səmə]가 부가되는 측면에서 보면, “老老”는 “話累贅狀”을 가리키며, 또한 “多言無濟之人”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북경어가 이 어휘를 계승하였고 다시 파생되어 하찮은 선비에 대하여 경멸 비난하는 것을 가리키며, 한걸음 더 나아가 적수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멸 내지 욕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북경의 일부 청년들은 욕설을 퍼부을 때 이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馬勺”은 청대 만주어 [maša]인데, 만주어 경어(京語)의 독음(讀音) 역시 [ma . šə]이다. 다만 한어 북경어 속으로 들어와서 한어를 따르는 음운 변화가 비교적 많이 생겨서 [ma .šaa]로 바뀌었다. 앞의 문자 “馬”라는 한어는 옛날부터 가축명, 관직명, 집안 성씨를 많이 가리켰는데 “馬”자로 “大”를 가리키게 된 것은 비교적 나중에 생겨난 것이다. 상, 중고 시기 한어에는 드물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大”를 가리키는 이 같은 특수한 조합 범주는 다만 벌레 종류와 풀 종류 가운데 특별히 커다란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馬蜂”, “馬蓼” 등이 있다. 만주어의 [ma]는 “勺子” 기구(器具)를 가리키는데, 한어에는 이 같은 용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용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 같은 차용음은 아마도 최초의 번역자가 그것을 한어의 “馬”[27]를 의지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 같다. “勺”은 한어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가 소통되는 원칙

www.kci.go.kr

27) 大, 즉 ‘크다’를 의미.

에 따라 한자의 "勺"자가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ʂa], [ʂə]가 보음(輔音) 속에서 여전히 [ʂo]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勺"과 비슷하고 의미상으로 "勺"이 만주어의 기구(器具)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었다. "馬勺"이 한어의 "大勺子"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는 다른 방증이 있다. 한어 자체에는 기구가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馬"를 사용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최초에 이 어휘가 한어에 들어왔을 때 모두 "大馬勺"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인(漢人)이 "馬勺" 속의 "馬"자가 "大"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그것을 전체 만주어 차용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한족이 만주족의 이같이 긴 자루를 지닌 나무주걱이 한족의 주걱보다 크다고 보고 "馬勺"의 앞에 "大"자를 붙였다. 오늘날 북경에는 이미 청대 초기 만주족의 그 같은 진짜 "馬勺"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북경인은 오히려 "馬勺"에서 변하여 점차 정교해진 자루달린 작은 볶음 남비를 "馬勺"이라고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앞의 "大"자를 이미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把馬勺刷一下, 我來做"가 있다.

"抖露"[28]는 청대 만주어 [toola]에서 현대 북경어 [tou . lə]로 변한 것으로 성조와 중경(重輕) 특징은 앞에서 서술한 각 어휘들과 같고, 이밖에 [too]에서 [tou]로 변한 것에는 한어 복운모(複韻母)의 조합 방식에 부합한다. 만주어의 "騰寫" · "倒水"에서 한어의 "披露 · 揭露"라는 의미로 변한 것 역시 이들 어휘의 의미가 바뀐 단서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騰寫"는 일종의 서면화된 소식(消息)을 "披露"하는 형식의 하나이며, "倒水" 역시 항아리, 통, 컵 속의 물을 전부 드러내거나 "漏"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된 한역자(漢譯字)는 그것이 만주어의 음역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www.kci.go.kr

28) 역자주 : 抖露 ; 비밀을 노출하다.

이 같은 단어는 북경어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데, 예를 들면 "你不着急, 等到把你的事全抖露出來就好了!"

"數落"[29]은 만주어 {šule}에서 북경어의 {šu . luo}로 된 단어인데, 하나는 경음(輕音) 환경 속의 원음(元音)이 변화된 정도가 비교적 자유로워서 {lo}, {lə}, {la}, {luo}로 발음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는 한역자(漢譯字) "落"의 한어의 본래 발음이 나중 사람들의 발음에 참고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luo}라고 읽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數落"의 만주어 의미는 "徵收"이다. 세금이나 물품의 징수는 모두 하나하나 검사하여 수납해야 하므로, 이 같은 의미가 북경어에 들어와 파생되어 "挨檢查了, 挨稅了"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 말에는 또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열거하고 검사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划拉"[30]은 청대 만주어 {xua}는 "院子"을 가리키는데, {xualampi}는 "院子"의 동사형으로 "掃院子"를 말하는데, {mpi}는 동사 일반식의 접미사로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 근거하여 시태(時態)를 바꿀 수 있으며, 또 어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통상 명령문을 나타낸다} {xuala}는 만주어 경어(京語)를 거쳐 북경어가 되었는데 앞에는 성조가 붙고 뒤에는 경음(輕音)이 되어 {xua . lə}가 되었다. 첫음절 양평(陽平) 성조는 대부분 대역 한자가 지니고 있던 자체 성조의 영향으로 뒤의 음절 원음 {a}가 경음(輕音) 환경 속에서 약화하여 {ə}가 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이 단어는 한어 북경어의 의미가 만주어보다 확대되었다. 만주어는 "划拉"(院子)만 가리키는데 북경어에서는 "划拉墻", "划拉炕" 등을 가리킨다. 이 "划拉"은 결국 한어 고유 체계

www.kci.go.kr

29) 역자주 : 數落 ; 현대한어 {shǔluo} 남의 잘못을 열거하여 꾸짖다.
30) 역자주 : 划拉 ; 물기나 때 등을 제거하다. 집어 넣다. 거둬 들이다.

의 "掃"자와 다르며 "掃"자의 용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橫掃一切牛鬼蛇神"[31]라고 하면 "划拉"로 대체할 수 없다. 오늘날 "划拉" 역시 한걸음 더 나아가 조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撈錢"에서 역시 "划拉"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這小子眞能划拉錢"식이다.

"松"은 청대 만주어 {soŋkombi}[32]가 변해서 현대북경어 {soŋ]이 된 단어이다. 첫음절이 전체 만주어를 나타내는 것은 만주족이 한어를 사용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한자에서 이 같은 음절의 양평(陽平) 상용자(常用字)를 찾지 못하고 다만 "松"을 사용하여 대신하였다. {soŋ]이 {soŋkompi}를 나타내는데, 만주어 의미는 "哭"으로, 오늘날 북경어에서 사용하는 {soŋ]으로 "好哭, 無能力"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단어는 북경 전 도시에 널리 사용되어 오늘날까지 구어(口語) 속에서의 상용어(常用語)가 되었다.

"白"는 청대 서면 만주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pai]로『清文彙書』에 "等閑", "無事", "平白"으로 풀이되며, 다른 하나는 {paipi}[33]로 의미는 "白白地", "只是"로 부사이다. 이 두 단어의 다른 의미 항목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이 두 단어의 의미 항목이 약간의 유사함이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하다. 호증익(胡增益) 선생은 지적하기를 "만주어에서 발음상 한어의 부사 '白'에 가까운 것으로 bai, baibi, baibingge 있다. ... 청대에 출판된『大淸全書』,『滿洲類書』,『淸文彙書』같은 사서(辭書) 및 만주어 교과서『淸文啓蒙』에 나열된 단어 항목 중 bai, baibi는 모두 독립된 항목이 있다. ... 몇 개 사

31) 역자주 : 일체의 소나 뱀 같은 귀신을 일소하다 ; 사회의 잡배들을 소탕하다.
32) 역자주 : songgombi ; 울다. 곡(哭)하다.
33) 역자주 : baibi ; 부질없이. 다만. 그저.

www.kci.go.kr

서(辭書)의 주석에서 살펴본 의미에는 '白', '白白', '平白', '閑', '(平)常', '只是' 등이 있다."고 하였다.(「滿語的bai和早期白話作品"白"的詞義研究」『中國語文』1989年 第5期 참고) 비록 이 두 단어가 만주어에서 모두 서면 기록이 있지만 "等閑", "無事"를 나타내는 [pai]는 중고(中古) 시기 한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나중에 이 "白"은 만주어 속으로 차용되어 들어갔다. 우리는 여진어에 차용되어 들어간 고대 한어 어휘가 나중에 만주어 속에서 발음과 의미상의 변화가 생겨 발전한 것은 모두 만주어 어휘라고 계산해야 할 것이다.(다만 고유한 계통의 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사 "白白地", "只是"를 나타내는 [paipi]는 만주어 고유 체계에 속하는 단어로 나중에 만주어 경어(京語) 전중후경(前重後輕)의 약화와 또 다른 "白"자의 유추로 인하여 그것 역시 [paipi]에서 [pai]로 변하였고 두 개의 "白"이 합쳐졌으나 기인(旗人)들이 사용할 때는 결코 뒤섞이지 않는다. 다만 청대 후기 만주식 한어 속에서 비로소 점차 병행 사용되었다. 『紅樓夢』은 건륭(乾隆) 연간에 해당하는데 조설근(曹雪芹)은 여전히 만주어 "白"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難道我通共一个宝玉, 就白放心, 凭你們勾引壞了不成"(77回, 1904頁)

여기서 "白"이 바로 "只是"의 의미이다. 그런데 문강(文康)의 『兒女英雄傳』 시기에 이르러서는 두 개의 "白"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那人將來不可限量, 太太白看着, 幾天兒就上去了."(第2回, 第2頁)

"講到我鄧老九, 一个無名目, 白出身."(第32回, 第18頁)

"這話我可是白說, 主意還得姑太太自己拿定."(第40回, 800頁)

두 번째 문장의 "白"은 "閑"의 의미이고, 세 번째의 "白"은 "等閑, 平白"

www.kci.go.kr

으로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모두 만주어 {pai}의 음역으로 만주어 속에서 고대 한어로부터 차용한 어휘가 발전한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의 "白"이 가리키는 것은 "白白地" "只是"로 '헛되어 방법이 없는'을 가리킨다. 그것은 만주어 고유 체계 속의 {paipi}가 간략하게 되어 {pai}의 의미로 변하였다.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白"은 청대 이전의 한어 속에는 없다. 이로써 우리는 현대 북경어의 "白"은 적어도 만주어 차용어의 의미 항목이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북경어에 {pai}로 발음하는 "白"이 있는데, 예를 들어 "他又在那白話起來了"가 있다. "白"은 "閑"의 의미이며 또 {paipi}의 "白"이 있다. 예를 들어 "累了一天了, 沒給工錢沒供飯, 眞是白干了!" "白"은 "只是", "徒然地"의 의미이다. 어법적으로 말하면 {pai}에서 유래한 "白"은 형용사가 될 수 있고, {paipi}에서 유래한 "白"은 다만 부사로 쓰이는 것 역시 이들 단어의 기원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膈扎"(格支)[34]는 청대 만주어의 {kətšʃxəšə(mpi)}가 만주어 경어(京語)에서 일반적으로 어간 {kətšʃ}로 전체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되는데, 나아가 북경어로 전환되어 양평(陽平) 성조(聲調)가 부가되어 만주어 구어(口語)의 중경음(重輕音) 운율 특징을 들여와서 줄곧 오늘날의 {kə . tšʃ}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북경어 속에서의 의미와 청대 만주어의 의미가 동일한데, 바로 "在腋下搔痒痒兒"가 그것이다. {kə . tšʃ}은 북경에서 아직도 {kə . tɕi}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북경에 들어온 이후 만주어의 또 다른 음운변화를 계승한 것으로, 똑같은 예가 아주 많다. 예를 들어 청대 초기에는 청태조(淸太祖)를 "努爾哈赤"라고 불렀는데, 청대 중·후기에는 "努爾哈齊"라고 불렀다. 여기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는다.

www.kci.go.kr

34) 역자주 : 膈扎(格支) ; 간질이다.

"屯"은 고대 한어 중에 [tun]으로 주로 저축이나 군대의 주둔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屯田", "屯聚", "屯扎" 등이 있다. 여진인이 남하(南下)할 때 각각 특수한 사회 군락을 이루고, 함께 모여 살았는데, 이들의 거주지역과 사회군락이 합쳐진 마을은 모두 [t'ok'so]라고 불렀다. 동북 한인은 번역하여 "屯子"라고 하였고, [t'ok'so]는 "屯"으로 변하였으며, 단어의 뒤 한 음절이 탈락 [k']운미가 소실되었다. 한어는 다시 고유한 "屯"으로 음역하고 의미를 지닌 것으로 대역하였다. 그래서 동북 내지 광활한 중원 이북 지역의 여진인과 만주족이 통치하였던 지방은 광범위하게 "屯"으로 "庄"을 대신하는 지명(地名)이 많다. 만주어는 아직도 [xot'u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진어와 만주어의 교체기의 요동(遼東)에서 만주어의 후중음(後重音)이 비교적 많아서, [xo't'un]은 청대 만주어 중에서 아직도 전경후중(前輕後重)이다.[35]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城, 聚居的地方"로, 오늘날 한어의 "村庄"과 완전히 같은데, 아마도 동북 한인이 이 같은 만주어를 옮기면서 앞의 한 음절의 경음(輕音)을 소홀히 하여 뒤의 한 음절의 중음(重音)을 채용하고, 아울러 그 [t'un]음과 한자 "屯"[t'un]을 대응시켜, [xot'un]이 아닌 [t'un]이라고 하였는데, 한자를 쓸 때는 바로 "屯"이라고 하였다. 한 가지 중요한 단서는 동북의 역사에서 "村庄"이라는 의미의 "屯"이 최초에는 한자와 병렬 상호주석을 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庄屯", "村屯" 및 "屯子"[36] 등이다. 이후에 일반명사가 되었고 다시 고유명사와 조합되어 지명에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皇姑屯, 大屯, 孟家屯, 范家屯, 陶家屯, 扎蘭屯" 등인데, 대부분 모두 동북에 있다.

"哨卡"[37]는 한어의 "哨探"와 만주어 "卡倫"이 원래 같은 의미의 어휘였

35) 전중후경은 만주어 경어(京語)의 입관 무렵의 특징이다.
36) "子" 역시 한어이다. 명사화한 접미사로 이것으로 "屯"을 명사화하였다.

www.kci.go.kr

는데, 여기서는 각각 하나의 어소(語素)를 선택하여 각각의 어의를 나타내고 아울러 병렬 조합을 이루었다. 만한(滿漢)이 뒤섞여 거주하면서 점차로 융합하는 환경에서 이 같은 상호주석의 복합어는 아주 좋은 의사소통 작용을 하였다. "哨卡"는 오늘날 여전히 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哨所"를 가리킨다. 만주어 성분 "卡"는 "哨"와 조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기타 한어 어소와 조합되어 "邊卡", "設卡" 등 비병렬식의 복합어를 이루기도 한다.

"公子哥"[38]는 병렬 상호주석을 하여 한어의 "公子"와 만주어의 "阿哥"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阿哥"는 만주어에서 원래 "男孩兒", "小子"(兒子)이며, "大哥哥", "二阿哥" 역시 "大小子", "二小子"를 가리킨다.[39] 청대 북경에서 고관 귀족의 사내아이를 "少爺"라고 불렀다. 이때 "少爺"는 다시 "阿哥"와 같은 의미이다. 한족 중의 "公子"는 비록 광범위한 의미에서 "少爺"와 같은 의미이지만, 이미 "四體不勤, 五穀不分"[40]은 대부호의 "大少爺"이라는 폄의(貶義)가 파생되어 나왔다. 청말 북경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팔기 자제였다. 그래서 "公子"와 "阿哥"를 상호주석하여 핍진하게 형상하였다. 이 같은 단어의 생성은 비교적 늦고, 또 북경에서 상당히 유행하였는데, 바로 청 정부 후반 북경 전 도시에 경강(京腔)이 형성된 이후의 산물이다.

"檔案", [taŋ]음은 본래 상고한어(上古漢語)의 자료가 마땅한데, 다만 횡격자(橫格子) 틀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아주 일찍부터 동북 소수 민족의 언어

37) 역자주 : 哨佧 ; 변경이나 요충지에 있는 초소.
38) 역자주 : 公子哥 ; 부자집 자제.
39) 한어 항렬에서 "大兒子", "二兒子"이다.
40)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오곡을 분간 못하다. 즉 일을 하나도 안하고 생산 실정도 모른다.

www.kci.go.kr

속으로 차용되어 여진어에 이미 이 같은 단어가 있다. 그러나 여진어가 만주어로 발전해가는 중에 이 한어 자료는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다. 선반 · 장롱에 칸막이 하는 나무틀에서 다시 칸막이 하는 나무틀 중간에 놓여진 관공서의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만주족이 입관(入關)하기 전에 각급 관아에서 오가는 문서를 따로따로 분류하여 서류보관함에 보관한다. 그래서 한 서류 칸막이 안에 기재(記載)된 문서 재료를 "檔案"이라고 부른다. 청대 초기의 만주어와 한어는 모두 "檔案"이라는 어휘가 없었다. 만주어는 당시 "檔案"을 [taŋ sə]라고 했는데, 실제로 "檔" [taŋ]자에 동북 한어 명사 접미사인 "子"가 붙어서 조합된 것이다. 그러나 만주족은 정식 장소에서 여전히 "檔"자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盛京內務府檔", "崇德年間檔" 등이다. 만주족이 북경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만한(滿漢) 언어가 전면적으로 접촉 융합하여 경강식(京腔式) 북경어가 형성되었을 때, 만한어소(語素)는 널리 보급되고 또 상호주석하는 언어접촉 환경 속에서 "檔案"이라는 어휘가 형성되었다. 북경의 한인은 "檔"자가 문서를 분류 보관하여 나중에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문서자료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였고 또 사용하는데 습관이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다시 "檔"에 같은 의미를 지닌 "案"자를 붙여서 사용하였는데, "案"은 한어에서 최초에는 도마나 선반 같은 종류의 물건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선반에 놓인 문서를 안권(案卷)이라 부르고, 나중에 다시 공사(公事) 처리 기록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를 들면 "備案", "存案", "有案可查" 등, 이렇게 "檔案"은 병렬 상호주석하여 다시금 한족이 즐겨 사용하는 쌍음절어가 되었다. 그래서 "檔子"의 당안(檔案) 의미를 취하여 전해왔다.

"猫匿"의 "猫"는 만주어 [mo][41]의 음역어이다. 의미는 "樹木", "樹叢"을 가리킨다. 일찍이 여진인이 남하하던 시대에 장백산 동북 산기슭 숲이 울창

www.kci.go.kr

하고 눈으로 뒤덮인 평원(平原)에 거주하던 만주족 조상은 술래잡기 같은 오락을 대부분 숲속에 숨어서 하였다.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었던 장백산 흑룡강에서 숲속에 몸을 숨기면 찾기가 아주 어려워서 마치 몰래 감춘 것과 같았다. 초기 만주식 한어에 "藏猫"라는 단어는 바로 "割地", "出風" 같은 만주식 한어의 특수한 구성 어휘와 같이 모두 "어디에서 ~을 하다"라는 어법구조로 전환하여 해석할 수 있다. "在地中割"(庄稼), "在大風天氣中能出門", "在猫(樹叢)中隱藏". "藏猫"에서 발전하여 "猫匿"이 된 것은 만주식 한어가 경강(京腔) 한어(漢語)로 변했다는 지표의 하나이다. 전면적이고도 충분한 만한(滿漢)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대량의 만한어소 병렬 상호 주석의 복합어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제1장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이 같은 충분한 민족 접촉 융합이 청대 중엽 이후 북경 내외성(內外城)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으며 불과 그때 이후에서 청말에 와서야 "猫匿"을 포함한 이들 병렬 복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猫匿"은 청말에서 민국까지 줄곧 경강(京腔) 구어(口語) 또는 토박이말로 여겨왔다. 1930년대 제여산(齊如山) 선생이 저술한 『北京土話』에서 이 단어를 전사(轉寫)하면서 "猫兒膩", "猫兒尿"를 사용하였다. 당시와 이전 북경인은 이 같은 단어의 유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소리를 듣고 의미를 사용할 뿐이었다. 심지어 해방 후 일부 학자들은 "猫兒匿"을 "馬兒匿"라는 회족어(回族語)[42]로 혼동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사실 아라비아어 "馬兒匿"가 단지 "聯系"와 "馬"의 음소가 "猫"와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별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다른 외래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猫"가 바로 만주어에서 "樹叢"을 나타내는 "猫"[mo][43]가 바로 만주식 한어 "藏猫"의 "猫"이다. "猫"는

41) 역자주 : moo ; 나무. 수목.
42) 아라비아어의 차용어.
43) [mo]는 단지 서면 만주어의 표준음으로 만주어 경어에서 [mɔ]나 [mau]로 읽는다.

www.kci.go.kr

만한(滿漢) 언어가 접촉 융합하여 경강(京腔)이 될 때 한어 북경어에 들어왔는데, 한인이 다른 병렬 상호주석 복합어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猫"의 뒤에 다시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匿"을 붙여서 함께 "隱藏"을 나타내고, 나아가 의미가 파생되어 "隱藏的情節"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단어는 민국 이후 몇 십 년간 푸대접을 받았는데, 최근 십년간 다시 북경시 전역에서 유행하여 구어(口語)에서 상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末了"(末拉拉), [lala]의 만주어 의미는 "最尾部", "最後"이다. 한어의 "末" 역시 "最後", "儘頭", "末"을 가리키는데, "拉拉"과 병렬구조로 상호주석을 하고 있다. 북경 시내의 노인들은 현재 아직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어 쌍음절어의 유추(類推) 개조 작용으로 만주어 [lala]는 한 음절을 생략한 [la]와 한어 [mo]를 사용하여 병렬 조합으로 [mol]이 되었다. "末拉"는 아화음(兒化音)이 붙어서 "末拉兒"가 되었는데, 이 단어 역시 옛 경강(京腔) 속에서 때때로 운용되고 있는데, 북경 한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拉"자의 만주어 의미에 대해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단어 역시 [la]가 발음이 가깝고 의미가 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어에서 "結束", "了結"의 의미를 나타내는 "了"[liau]로 사용하였고, 다시 아화(兒化)하여 오늘날 북경어에서 상용(常用)하는 "末了兒"라는 어휘가 되었다. "了" 역시 여타 만주어가 병렬식 복합어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중경(重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의 "了"자는 경음(輕音)으로 읽지 않으며, 한어에서 구조를 만들거나 어기조사의 "了"[lə]는 더더욱 아니다.

"軋伍悠兒"은 청대 서면 만주어 [ja pu][44]가 만주어 경어(京語)에서 전중

www.kci.go.kr

44) 역자주 : yabumbi ; 가다. 다니다. 행하다.

후경(前重後輕)으로 뒤의 한 음절 보음(輔音)이 약화하여 [ja . wu]가 되었다. [ja . wu]는 나중에 심지어 [ja]만 남았다. 한자는 일반적으로 "軋"자를 사용하여 대역한다. 앞에서 이미 말하였는데, 그것은 구어(口語) 중에 항상 천천히 가다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산보(散步)에 해당한다. 한어는 "軋伍"를 차용하여 뒷부분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悠"로 병렬 상호주석하였다. "悠"는 "閑散", "悠蕩" 또는 "悠悠蕩蕩"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어슬렁어슬렁 왕복 산보하는 것을 나타낸다. 뒷부분에 아화(兒化)하였는데, 이것이 북경어의 특징이다. 오늘날의 북경어 구어(口語)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班車都來了, 他倆還軋伍悠兒地在那溜達着, 怎麽不着急呢?!", "你別軋伍悠兒地了, 上課鈴兒都響了"

"扎呼", 만주어 [tša pu][45]는 "答應"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tša]"를 사용하여 전체 단어의 의미를 대표하여 "答應"을 나타낸다. 한어의 "呼"는 "呼喊", "呼叫"의 의미이다. '한 번 부르고 한 번 답하다'이다. 다시 빈번하게 부르고 응답하는 것으로 변하였고, 현대 북경어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여 과시하다는 의미가 되었다. 현재 이 두 단어는 통상 각각 중첩하여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這小姑娘够能扎呼的了!" "他那個人扎扎呼呼的, 我不喜歡"

이밖에 동북의 드넓은 지역의 만주식 한어에서는 "扎呼"의 "扎"을 여전히 음평(陰平)으로 읽으며, 동북지역의 현대 만주어 [tšapu]의 "扎"이 여전히 고평음(高平音)으로 똑같이 읽는데 이것은 이 "扎"이 만주어이며 북경에 들어온 이후 만주어 경어(京語)의 중음전이(重音前移)현상으로 첫음절에 가중되는 영향을 받아서 거성(去聲)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www.kci.go.kr

45) 역자주 : jabumbi ; 대답하다.

"馬猴兒帽"[46], 이 단어는 청대 만주어에서 두 가지 독음(讀音)이 있는데, 하나는 {maxala}로 읽고 다른 하나는 {maxw}로 읽는다. "馬猴"가 바로 {maxw}에 대한 발음과 의미를 겸한 한역자(漢譯字)이다. 그중에 {w}음은 만주어에서도 원래 논쟁이 있는데, 로마자로 전사한 음인 {u}를 어떤 이는 {ɔ}로 어떤 이는 {w}로 말한다. 종합하면 후중원순원음(後中圓脣元音) {o}와 비교적 들어맞는다. 그러나 비록 {w}라고 해도 역시 한어 "猴"의 본음 {ou}와 서로 가깝다. {maxala}[47]는 다시 『淸文彙書』 중에 "暖帽"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겨울모자이다. 한어에서는 동의어인 "帽"를 가지고 그것과 병렬하여 단어를 구성하였다. 즉 "帽"를 가지고 "馬猴兒"를 주해하였다.

"軋馬路"[48], "軋"자는 만주어 {japu}중의 {j}로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서술하였다. 한어에서 "馬路"라는 단어의 길지 않은 역사로 보면 "軋馬路" 역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대 만한 복합어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軋", "軋伍悠兒"이 있고나서 "軋馬路"가 나왔다. 여기의 {ja}음은 한어의 "壓"자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북경인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ja}馬路는 모두 '馬路'에서 산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軋馬路" 역시 기타 만주식 한어 예를 들어 "割地", "出風" 등과 같이 "在...做..."[49]의 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在馬路上軋(散步)"식이다. 만약 "壓馬路"가 이해된다면 위에서 아래로 압력을 가하여 사람의 두 발로 큰 길 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비록 논리상으로는 맞지만 "軋馬路"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는 도리어 부합하지 않는다. "壓馬路"는 오늘날 대부분 "壓路機"가 아스팔트 도로를 평탄하게 누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

46) 역자주 : 방한모의 일종으로 머리부터 얼굴 전체를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한 모자.
47) 혹은 {maxw}로도 읽는다.
48) 역자주 : 軋馬路 ; 현대한어 {yamalu}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49) 역자주 : 어디에서 무엇 무엇을 하다.

www.kci.go.kr

의 [ja]馬路이다.

"車把式"[50], "把式"은 만주어 [pakšʃ]가 [paršʃ]로 변한 뒤의 한역자(漢譯字)이다. 앞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그것은 광의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식어와 술어 등을 동반하여 여러 형태로 결합된 만한 복합어를 구성한다. 한어의 "車"와 "把式"이 결합하여 편정(偏正)구조로 이루어져서 차를 모는 기술자를 뜻하게 되었고, 이것은 북방 한어의 "車老板兒"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車把式"은 "車老板兒"에 비해 사용이 보다 보편적이다. 청말 민국시기에 "花把式", "鷹把式" 등은 흔히 보는 어휘들이다. 즉 팔기 자제 중에 꽃을 기르고, 매를 다루는 방면에 전문가인 사람을 말한다. 만주식 한어에서 씨름, 공중돌기를 "打把式"이라고 부른다. "把式"의 생산성은 "妞"와 같아서 이미 그들과 한어 성분으로 구성된 새로운 단어의 수량을 전부 거론하기 어렵게 되었다.

"藏猫兒"[51], "猫"는 만주어로 "樹叢"인데, 술래잡기를 하면서 항상 장백산의 큰 나무에 숨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는데, 나중에 "猫"는 다시 "隱藏"이라는 의미를 파생하였다. 예를 들어 "猫兒匿"이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 만주족 지역에 보편적으로 "藏猫兒"라 하고, 청초기인어(旗人語)를 보존하고 있는 향산(香山) 건예영(健銳營) 언어 중에도 "藏猫兒"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猫"가 모두 아화(兒化)된 합성 [mɔ r]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藏猫兒"은 분명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猫"는 바로 "樹叢"을 나타내는 것이다. "藏猫兒"는 "藏在樹叢里"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며 또는 "在樹叢里隱藏"라고 할 수 있는데,

www.kci.go.kr

50) 역자주 : 車把式 ; 마부.
51) 역자주 : 藏猫兒 ; 숨바꼭질하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개의 만주식 한어의 구문 격식과 상통한다. “藏猫兒”의 “猫兒”는 청대 후기에 형성된 경강(京腔) 중에서 병합형(拼合型) 아화(兒化)로 읽으면 [mɔ rə]이다. 이것은 만주식 한어의 아화(兒化)와 관화한어(官話漢語)의 아화(兒化)가 융합된 흔적이다. “藏猫兒”은 북경 독음이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북경의 만한인(滿漢人)의 구어(口語) 속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咱們”, 만주어의 [musə][52]는 1인칭 복수를 나타낸다. 한어의 “們” 역시 근고(近古) 한어에서 점차 형성된 “人”을 나타내는 복수의 하나이다. 만주어의 [mu]라는 한 음절로 단어 전체를 대표하며 한어의 복수접미사 “們”과 조합하여 단어를 구성하였다. 가장 이르게는 동북으로 오늘날의 동북 요녕(遼寧), 길림(吉林)의 몇몇 만주족 자치현의 한어 방언 중에 모두 “咱們”을 사용하고 있다. 청대 초기 호북 형주(荊州), 산동 청주(青州) 등지에 파견되어 주둔 방어하던 기인(旗人) 후예들은 오늘도 “咱們”이라고 한다. 북경 서교(西郊) 향산(香山) 건예영(健鋭營) 노인은 “咱們”이라고만 하는데,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我們”을 거의 들을 수 없다. 북경 시내에는 오늘날 “咱們”과 “我們”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경강(京腔)과 표준어의 차이이다.

“怪不得”[53], [bu]는 만주어 사동식이다. [də]는 만주어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여격(與格)인데, 앞에서 이미 “巴不得”, “恨不得”, “愿不得”을 서술하였다. 여기의 “不得”은 앞의 몇 가지 예에서 나온 “不得”과 같다. 어간의 “怪”는 한어의 “埋怨”, “責備”의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주어에서 “斥責”을 나타내는 “恨”[xən]과 같은 의미이다. 어의 특징면에서 일종의 심리상 의향(意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같은 격식에 놓여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책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 한

www.kci.go.kr

52) 역자주 : muse ; 우리. 咱們. 이 때의 우리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 모두를 포함한다.
53) 역자주 : 怪不得 ; 과연. 그러기에. 어쩐지. 탓할 수 없다. 책망할 수 없다.

친구가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 “怪不得呢! 我早就說過他們不合適, 長不了”

“大大咧咧”[54], “大”는 한어에서 단독으로 중복되는 용법이 없다. 물론 “大大地”는 예외이다. 여기서는 만주어의 “咧咧”와 나란히 중첩되어 두 개의 “大”가 된 것이다. “大大”는 여기에서 병렬구조의 앞부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상황어의 기능을 한다. “咧咧”은 만주어 {lələ}의 규칙성 음운 변화로 만주어 {lə}는 구어에서 항상 {liɛ} 또는 {liɛ}로 변하는데, 어의는 “議論, 說”을 뜻한다. “大大咧咧”은 바로 거칠고 투박한 소리, 허튼 소리로 한담하다의 의미이다. 나중에는 말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 특징을 가리키게 되었다. 즉 언행이 거칠고, 개의치 않는 모습을 말한다.

“娘們娘氣”, 경강(京腔)을 사용하는 북경인은 노년이나 중년, 청년을 막론하고 모두 {nia m nia tɕ'i}로 발음한다. 이것은 나중에 북경에 들어와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어 고유의 계통인 “娘”자 본래의 발음을 따라서 {niaŋ}이라고 발음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niaŋ}이라고 이 네 음절을 발음하는 것은 노인들이 듣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다지 맛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한 남자를 “女了女氣”라고 할 때의 강렬한 조소(嘲笑)와 해학적인 어감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사실 {niam}은 바로 청대 만주어 {nialma} “人”에서 변화한 것이다. 애신각라 · 영생(愛新覺羅·瀛生) 선생은 「談談滿語的京語」에서 만주어 경어(京語)로 {nialma}를 {niam}으로 하였고, 김계종(金啓孮) 선생은 {niam}이 청말 경기(京畿)지역에서 “小佳人”을 가리켰다고 하였다. “小佳人”은 연극에서 젊은 여자역을 하는 깜찍하고

www.kci.go.kr

54) 역자주 : 大大咧咧 ; 진지하지 못하고 건성이다.

총명한 여자를 가리킨다. “小佳人”은 연극에서 소리와 감정이 잘 어루어진 연기 동작으로 여자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여성적인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남자를 우스개로 “娘們娘氣”라고 한다. 여기서 만한어 성분이 융합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 잘 모르는 것이다. 만주어 {niam}의 발음과 의미를 사용하였고, 또 한어 역어로 하여금 발음이 비슷하며 의미가 통하는 매우 이상적인 중첩(重疊) 상태어인 대역 한자, 즉 한어 고유 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娘”자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한어 중첩 상태어의 관습에 한어 “氣”를 부가하여 4음절어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한어 사용자가 변화시킨 단서를 간파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娘”자를 이 어휘 속에서 {niaŋ}으로 읽으면, 경강(京腔)의 어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만주어의 {niam}은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가 통하는 원칙에 따라 한자로 대역된 “娘們”은 마치 완벽한 것 같은데, 사실 “們”은 청말 이래 현대 한어에서 줄곧 복수를 나타냈다. 만약에 여기의 “娘們”이 한어 고유체계의 단어라면 그것은 반드시 복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娘們娘氣”는 오히려 대부분 단수를 가리킨다. 한어의 특징은 항상 대칭성을 지닌 단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어 고유 체계의 단어 “娘們”이 있으면 상대되는 “爺們”[55]이 있다. 또한 “哥們”, “姐們” 등등이 있다. 그러나 “娘們娘氣”는 있지만 “爺們爺氣”는 없다. 또 “男們男氣”도 없는데, 이로써 이 단어의 왜래어적인 특수성을 알 수 있다. 한어에서 중첩을 나타내는 상태어는 대부분 단어 끝이 “氣”를 사용하고 제2음절은 종종 “哩” {li}({lə}로 읽기도 한다) 예를 들어 “傻哩傻氣”, “粗哩粗氣”, “女哩女氣” 등이다. 그러나 유독 “娘們娘氣”만은 똑같이 사람을 나타내는 상태어이지만 오히려 “娘哩娘氣”라고 하지 않는다. 이로서 만주어 {m}의 음역인 “們”과 만

www.kci.go.kr

55) 한어에서 연장자인 남자에 대한 존칭.

주어 [nia]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nia]라고 읽는 "娘"자는 지금까지도 북경에서 아직도 두 가지로 읽는다. 일부 사람들은 음평(陰平)으로 읽는데 대부분 옛 기인(旗人)과 그 후예이고, 일부 사람들은 양평(陽平)으로 읽는데 북경인이 비교적 많다. 이것은 이 단어가 아직도 완전히 만주어 원음의 고평음고(高平音高) 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急齒掰臉"[56], 여기서 "掰"자는 만주어 [paitš'ampi]중의 [pai]이다. 『現代漢語詞典』의 용례는 "急齒白臉"인데, 해석을 "心理着急, 臉色難看"고 하여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제여산(齊如山)의 『北京土話』에서 "急齒掰臉"을 바르게 풀이하였다. 그는 "急着說話, 帶怒容"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掰"는 "白"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된다. "掰"는 만주어에서 "驗查"인데, "掰臉"은 바로 얼굴을 붉히며 다른 사람과 경중(輕重)을 분별하여, 결국 누가 옳은지 검사 또는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掰"자가 만약 다시 "白"로 바뀐다면 그것이 만주어 어소(語素)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有一搭无一搭"[57], 여기서 "搭"는 만주어로 "首領, 頭目"을 나타내는 [ta][58]이다. "搭"자는 청대 북경의 만주식 한어 속에서 십분 활약하였다. 예를 들어 "筐兒搭"(營長), "缸兒搭"(翼長), "鹿達"(養鹿的官兒) 그밖에 壞事搭, 禍搭 등.

이 어휘 결합을 직역하면 "머리가 있고, 머리가 없다"인데, 이는 곧 "관

56) 역자주 : 急齒掰臉 ; 핏대를 올리다.
57) 역자주 : 有一搭无一搭 ; 억지로 이말 저말 하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58) 역자주 : da ; 근본. 뿌리. 두목.

www.kci.go.kr

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자 없이 일한다"는 의미이다. 즉 주인이 있을 때는 성실하고 진지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파생되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이루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그러한 초월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

"馬虎眼", "馬虎"는 만주어 [maxw]인데 이 단어는 만주어에서 "鬼臉", "假面具"를 가리킨다. "馬虎眼"은 바로 귀신 얼굴, "鬼臉"에 눈짓인 "眼色"을 붙인 것으로 실제로는 가면을 움직여 눈짓으로 사람대신 엄호하는 것으로 "假面具"와 관계가 있다. "馬虎"는 한어 북방 방언에서 전해오는 흉악무도한 도깨비가 결코 아니다. 오늘날 북경어에서 "馬虎眼"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모두 거짓으로 눈짓을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실의 의도를 비호(庇護)하는 것을 말한다.

"瞎掰"[59], "掰"자는 만주어 [paitš'ampi][60]로 "查驗", 검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여러 번 서술하였다. 그것과 한어 "瞎"자가 결합하여 상황어 중심어 편정식(偏正式) 만한 복합어를 구성하였다. "엉터리로 검사하다"를 뜻하는데, 나아가 "瞎辯(別)", "瞎說"을 가리키게 되었다. 『辭海』의 해석에는 "掰"를 양손으로 물건을 나누는 것, 예를 들어 "一掰兩開, 掰開揉碎"라고 하였다. 이 같은 의미의 "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만주어에서 유래했다고 선뜻 긍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掰"자는 한어에서 비교적 늦게 나타난 어휘이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瞎掰"는 현대 북경어에서 대부분 "瞎說"을 가리키며 이는 "胡說八道"와 같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59) 역자주 : 瞎掰 현대한어 [xiabai] ; 헛수고를 하다. 함부로 말하다.
60) 역자주 : baicambi ; 관찰하디. 조사하다. 고찰하다.

www.kci.go.kr

"配搭兒", "搭"은 만주어에서 "首長", "首領"을 나타내는 [ta]로서, 때로는 일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반드시 관직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禍搭"과 "鹿達"[61]은 각각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사슴을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配搭兒"는 바로 관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현대 북경어에서는 의미가 확대되어 대체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지는 않지만 허드렛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嗄肢窩"[62], "嗄肢"는 청대 만주어 [kəʧʃ xəʒəmpi]의 어간으로 경어(京語) 구어(口語)의 음이 변화를 겪고 한어에 차용된 것이다. "嗄"은 당연히 "格"으로 읽어야 한다. [a]와 [ə]는 구어(口語)에서 항상 자유롭게 바꾸어 읽는다. "嗄肢"는 본래 "腋下搔痒兒"하는 동작을 가리키는데, 한어 "窩"와 결합하였다. 이 같은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어법은 만주어에서 용인되는 것이다. 어느 때는 동사의 어간 뒤에 [mə]가 붙어서 체언성 중심어를 수식할 수 있다. "嗄肢窩"는 바로 "腋窩"이다. 오늘날 경강(京腔)을 말하는 북경인 중에 "腋窩"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들이 상용하는 어휘는 여전히 "嗄肢窩"이다.

"馬褂兒"[63], "褂兒"은 만주어 "褂懶兒"의 축약형이다. "褂懶兒"은 원래 부녀자들이 입는 일종의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말한다. 나중에 이 같은 조끼식 짧은 옷 역시 기인(旗人) 병사의 군복 외투의 하나로 개조되었다. 기인(旗人) 병사들이 항상 말을 타고 그 옷을 입기 때문에 한어의 "馬"자로 "褂"를 수식하여 이음절 단어로 만들었다. 실제로는 일종의 짧은 상의(上衣)인

61) 達은 [ta]를 음역한 이체 한자.
62) 역자주 : 嗄肢窩 ; 겨드랑이.
63) 역자주 : 馬褂兒 ; 마고자.

www.kci.go.kr

데, 청대 초기에 유독 기인 병사들만이 착용한 일종의 만주족 의상이다. 옹정(雍正) 연간 그 같은 복장을 착용하는 이가 점점 많아져서 청말에는 일종의 국민복장, 즉 국가적인 의상이 되었다. 현대 북경인은 이 옷을 이제는 입지 않지만, 이 단어는 여전히 살아서 "長袍馬褂兒"이라고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抓辮子"[64], 이 단어의 결합은 만주족의 풍속 습관에서 유래하였다. 만주족은 무예를 단련하는 민족이다. 비록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평상시 남자들은 모두 씨름을 즐긴다. 여진인이 만주족이 됨에 따라 남자는 모두 긴 변발을 기르게 되었다. 씨름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변발을 잡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변발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잡는 것과 같아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상황이 똑같다. 그래서 만주족 남자들은 씨름이 시작되면 상대편 모두 몸을 비스듬히 하여 변발을 뒤로 한다. 이 같은 풍속으로 생겨난 "抓辮子"라는 단어는 나중에 북경어에서 "抓要害"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 것을 말한다.

"(吃)皇粮", 청대 기인(旗人)은 군인이 그들의 직업이었다. 그들의 생계비는 황제가 주는 양식으로 관청 양식이었다. 오늘날 이 단어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국가가 주는 보수에 의존해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옛 북경인들은 "粮"자를 여전히 경성으로 읽는다.

"旮旯兒"[65], 만주족이 읽는 원·보음(元輔音)이 모두 뒤로 후퇴하여 [a] 원

64) 역자주 : 抓辮子 ; 약점을 잡다.
65) 역자주 : 旮旯兒 ; 구석. 구석진 곳.

www.kci.go.kr

음화해율(元音和諧律)이 되는 것에서 보면 이 단어는 초기 여진어 어휘로 봐야할 것이다. 이 단어는 일찍이 북방 한어에 차용되었으며, 동북인들이 "犄角旮旯"라고 병칭해서 늘상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어의 "犄角"[66]를 사용하여 병렬 상호주석한 외래어와 매우 비슷하다. 단독으로 "旮旯"라고만 해도 "角落"을 뜻한다.

"趿拉板兒"[67], 신발 양측의 볼이 없이 다만 거는 고리만 있는 나무밑창 신발. 화북 한인(漢人)은 통상 "呱嗒板兒"라고 한다. 동북 만주족과 북경 기인(旗人)이 항상 신을 뿐만 아니라 "趿拉板兒"라고 부른다. "趿拉"의 원음화해율(元音和諧律)과 길림 만주족 구어(口語)에서 항상 "趿拉板兒", "趿拉趿拉的" 같은 표현으로 볼 때 그것은 해서(海西) 여진어의 구어(口語) 어휘인 것 같다. 확정되기 전이라 여기서는 임시로 만주식 한어라고 하였다.

"旗袍兒", 기원은 만주족과 기인(旗人)이 널리 입는 일종의 상하 원피스로 된 겉옷이다. 여자 치파오[旗袍]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동양 여성이 지닌 독특한 의상 색채가 풍부하다. 중국 전역에 널리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주제어: 北京話, 滿語, 融合規律

www.kci.go.kr

66) 구석, 모퉁이[角落]를 나타낸다.
67) 역자주 : 趿拉板兒 ; 나막신.

■요 약■

북경어의 만주어 기층 분석과 만한어의 융합 법칙

趙 杰 /宋康鎬

현대 북경어 속에는 많은 만주어 기층 성분이 남아 있다. 만주어의 어음 특징과 기민어(旗民語)가 들여온 만주어 발음 습관은 대부분 이들 어휘 속에서 원래의 북경 한어 어음과 유기적인 융합 과정을 거쳤다. 논문의 분량 제한으로 여기서는 다만 필자가 7년(1987년~1994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한 800개의 어휘 중 100개만을 분석하여 "작은 관문을 통해 전체를 본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북경어, 만주어, 융합 법칙

www.kci.go.kr